

개관 앞둔 문화전당 주변 교통혼잡 걱정되네

전대병원 방향 일방로 확장 공사 국고지원 제외 불발

동구청 훌쩍제 주차차 시행 등에도 상인들 효과 의문

광주시 동구가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문화전당로 일방통행로(인쇄길) 통행차량과 불법주차된 차량이 뒤엉키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문화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외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도로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구는 궁여지책으로 한방향에 대해서만 주차차를 허용하는 훌쩍제 주차차제를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다른 단속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이달 말부터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

전당로 일방통행로 217m 구간(너비 9m, 차도 6.5m·보도 2.5m)에 대한 훌쩍제 주차차 허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1억9500만 원을 들여 불법주차차 단속 CCTV(5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총장로 1가 입구에서 전대병원으로 향하는 일방통행로로, 양방향에 불법주차된 차를 때문에 1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5분~10분 이상 걸려 지나질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이다.

현재 해당 구간에선 불법주차차 단속을 해달라는 일반 운전자들과 단속을 삼가해달라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가 지난 2년간 단속한 불법주차차 단속건수는 모두 1466건.

다른 구간의 단속건수가 대개 100~20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는 이 구간의 불법주차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총장로1가~전대병원 일방통행로



문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인 조선대와 거리가 500m~1km 안팎에 불과해 이 일대 교통기능 마비에 따른 주민·상인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 이유는 해

당 구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외 지역으로 분류된 탓이다.

광주시와 동구는 지난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의 의견을 근거로, 217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를 수 차례 요구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사업 외 지역으로 국비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와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형평성에 여극난다는 것이다.

교통심의위는 당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교통량이 늘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너비 25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동구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에 195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인들이나 운전자들 모두 훌쩍제 주차차 도입안만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도입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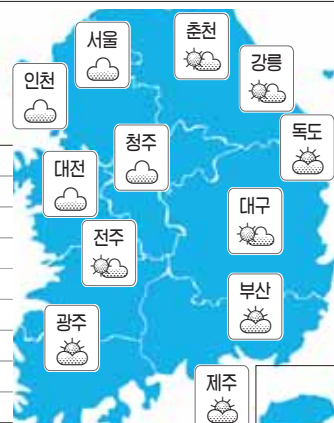
해돋이 06:41, 해질 18:41, 달뜨기 04:04, 달지기 15:10

남서해안 밤부터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일부지역엔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맑음	6/23	보성	맑은뒤흐림	1/18
목포	차차흐려져비	6/18	순천	구름맑음	7/20
여수	흐림	9/16	영광	구름맑음	3/21
나주	구름맑음	3/22	진도	차차흐려져비	4/19
완도	차차흐려져비	7/18	전주	흐림	4/21
구례	구름맑음	2/22	군산	흐림	3/18
강진	차차흐려져비	3/20	남원	흐림	2/21
해남	차차흐려져비	3/20	홍산도	차차흐려져비	7/14
장성	구름맑음	3/22			



◇ 바다 날씨

시해	안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1.0
남해	남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부	남바다(동)	북동~동	0.5~1.0	동~남동	0.5~1.5
서부	남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수면	50
운동	40
빨래	5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39	04:28
	23:54	17:23
여수	07:02	00:08
	19:07	13:09

◇ 주간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	☀	☀	☀	☀	☀	☀
12/17	11/17	6/17	4/16	4/15	3/14	2/15



“치솔질 잘 하세요” 16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열린 새싹들의 치아튼튼교실에서 참가한 유성어린이집 원생들이 치솔질과 치과체험을 하고 있다. 북구는 4월부터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 절반이상 “광주교육 정책 만족”

“비리 근절” 가장 호평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시민 12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4년간 광주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54%인 671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년간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좋았던 정책은 ‘비리 근절, 청렴’이 612명(49%)로 가장 많았고, ‘무상교육’ 505명(41%), ‘교직원 업무 경감’ 271명(22%), ‘빛고를 혁신학교 운영’ 199명(16%)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등교시간 조정(9

시등교’)이 517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선형학습 금지법 418명(34%)’, ‘교과범위 내 시험출제’ 388명(31%), ‘중학 교 자유학기 전면 시행’ 279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대상 정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학시기 조정’이 497명(40%)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준비물 및 기초학력 향상비 지원’ 435명(35%), ‘등교시간 조정’ 363명(29%), ‘교복 학교주관구매’ 339명(27%), ‘학교 등록금 동결’ 29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광주시교육청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 모바일을 통해 벌였으며 시민 1240명이 참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찰, 전처에 흥기 휘두른 40대 긴급체포

전처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최근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흥기로 찌른 정모(48)씨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흥기상해)으로 불집자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15

일 오후 7시50분께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에서 전처 박모(46)씨의 가슴을 흥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정씨는 박씨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아들(26)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불집했다. 박씨는 가슴 중앙에 2cm 길

이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말다툼 중 (전처가) 흥기로 자해하는 것을 막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내게 찌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가 사건 당시 아들에게 “아빠(정씨)가 흥기로 찌렀다.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재혼한 정씨와 박씨는 지난달 24일 이혼한 사이로, 사건 당일 정씨가 박씨의 집에 찾아가 외박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한 정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던 중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해 긴급체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국 초·중·고생 대상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

원개발원 주관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예방교육의 효과 등이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www.edu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조사에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화면을 블루밍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년 [스코리아] "김 김사연" 임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올리비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빌딩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63) 275-7766